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0. 30.(금)

한국수자원공사, ‘혁신챌린지’로 차세대 AI 물관리 혁신 솔루션 발굴 이끈다

- 21년간 이어진 대표 자율 혁신 제도. 직원 아이디어가 공공서비스로 확산하는 경로 마련
- ‘AI 전환’ 전사 경영 방향 맞춰 업무 완성도 높이고 현장 안전·효율 향상하는 과제 집중 발굴
- 우수 과제의 현업 적용과 후속 사업 연계로 ‘혁신 선순환’ 도모, 대국민 편익 제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0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는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을 개최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혁신챌린지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혁신 플랫폼이다. 직원들은 과제를 주도하며 자기 계발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고 공사는 이를 대외적으로 환류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전사 경영 방향에 발맞춰 ▲ AI 전환 ▲ 국민안전 ▲ 체감혁신 ▲ 균형발전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했다.

특히 ‘AI 전환’ 방향에 맞춰 직원들이 업무 전반에 AI를 능동적으로 접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해 업무 완성도와 현장 안전성을 한층 높이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지반침하·싱크홀) AI로 잡는다!’는 침하량 예측 기능 등을 활용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역시 이러한 실효성을 갖춘 과제 발굴에 주력했으며 치열한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경연에 오른 10개 팀이 혁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최종 대상은 ‘사진 한 장으로 위험을 찾는, “내 손안의 안전비서”’가 차지했다.

스마트폰 촬영 한 번으로 시설물의 높이·기울기를 정밀 측정하고 복잡한 안전 법령 연계부터 위험 요인 개선 보고서까지 자동 표출하는 원스톱 AI 영상 분석 기술이다. 점검자의 역량 편차를 줄여 누구나 안전 전문가처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사업화 가능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 악천후에도 자동으로 탐지·계도, 믿음직한 하천 지킴이 ‘AI 하천순찰대’ ▲ 카톡 하나로, 물 정보부터 재난 탈출까지! 등 AI를 현업에 실질적으로 융합한 다채로운 우수 과제들도 함께 선정됐다.

경연장에는 일회성 경연에 그치지 않고 우수 성과가 다음 아이디어와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환류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발굴된 과제들이 현업 적용과 실증을 거쳐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 내부의 창의적 시도가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AI를 핵심 경영 방향으로 삼고 ‘AI 정수장’ 등 국내외에서 표준으로 인정받는 선도 모델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차세대 AI 물관리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결실로 환류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초석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담당 부서	경영혁신실 ESG혁신부	책임자	부 장	한지만 (042-629-2401)
		담당자	차 장	김희연 (042-629-24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0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에서 본선 무대에 오른 10개 과제의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는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을 개최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혁신챌린지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혁신 플랫폼이다.

[사진] 2. 10월 29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대전 본사에서 열린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에서 혁신성과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는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을 개최했다.

[사진] 3. 10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혁신챌린지 최종경연(Final Contest)'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 대상은 '사진 한 장으로 위험을 찾는, "내 손안의 안전비서"'가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금상(2)·은상(3)·동상(4) 등 AI를 현업에 실질적으로 융합한 우수 과제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